

대선 D-15 갈 길 잃은 광주·전남 표심

17대 대선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남 표심은 갈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부동층과 투표 무관심층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데다 '호감 가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유권자도 40%를 웃돌고 있다. 역대 대선과 비교해 민주·개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응집도도 크게 저조하다.

부동층 전국 최다

범여 단일화 지지부진...정책대결 없고 비방만

"호감 후보 없다" 40%대... "투표 하겠다" 최저

그 깊은 무엇일까. 보수진영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정동준 의원간의 연대, 무소속 이희창 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간의 단일후보 합의 등 대연합을 선언하고 나섰으나 범여권 및 개혁진영의 단일화는 여전히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의 대결은 실종된 채 상호 비방만 난무하고 있는 것도 민심을 사로잡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층이 전국적으로 75.3%였으나 광주는 66.1%, 전남은 68.0%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보다 9.2~7.3%

광주일보의 지난달 23~24일 조사에서 광주·전남지역의 후보지지도는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 36.9%,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12.4%, 무소속 이희창 후보 9.8%, 민주당 이인재 후보 8.6%,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8.1%,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5.5%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 출신으로 개혁진영에 속하는 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지만 2002년 노무현 후보나 1997년 김대중 후보가 비슷한 시기 얻었던 70% 앙파의 지지에 비해선 크게 낮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문국현 후보와 이인재 후보의 지지율까지 합쳐도 53.6%다. 과거 대선에서 5% 안팎에 그쳤던 한나라당과 보수진영 후보의 지지를 합계는 20%대를 넘었다.

정보리서치 김민수씨는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특정후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에 비해 되돌아온 결과에 실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

정동준→이명박
심대평→이희창

합종연횡 시작됐다

문국현 후보 유세 일정 중단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의 합종연횡 및 외부인 사 영입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같은 후보를 중심으로 한 합종연횡은 대선 이후 18대 총선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4면>

3일 무소속의 정동준 의원(울산동)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회동을 가진 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입당과 이명박

두 취소한 채 선거전략 논의에 들어가 향후 정동영 후보와의 연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의 선물

3일 대현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소속 주부 회원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조손가정 182세대에 전달할 '사랑의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다. /워직랑기자 jrwi@kwangju.co.kr



"나주·목포·여수·순천·장성·곡성 과다인상"

지방의원 의정비 낮춰라"

행자부, 인하 권고

나주·목포·여수·순천·장성·곡성 등 전남도 내에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6개 지방의회에 인하 권고가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3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수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전남 6곳을 포함한 전국 44개 지방의회에서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것으로 판단해 인하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44개 지방의회의 경우 전남은 나주(인상을 75%)·목포(59%)·여수(50%)·순천(79%)·장성(49%)·곡성(45%) 등 6개 지역이 포함됐으며 광주는 한 곳도 없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 감액,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시 감정 등의 불이익의 이외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며 "주민의견조사의 무자격 반영,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의정비 지급기준 제시 등의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차경기자 unipark@kwangju.co.kr

社告

오늘 여수엑스포 정책포럼

대선 후보들에 듣는다... 서울 롯데호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포럼이 4일 열립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선진국을 향한 논의의 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여수박람회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광주일보는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국회·자체·연구기관 등 각계 각종 의견을 수렴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 2007년 12월 4일 오전 10시~12시
- ▲장 소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 ▲주 관 : 광주일보, 부산일보, MBN, 국회바다포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후 원 : 여수엑스포유치위원회,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산업발전협의회, 여수YMCA